

분과위원회 활성화로 채란업 방향 정립해야……

□ 정리 / 김용화 홍보팀장

「본고는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 천강균 위원장과 만나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매월 5일을 기준으로 본회 채란분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변화가 있다면?

△ 천강균 : 난가가 생산량 감소로 어느 때보다 높게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참여도나 호응면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견조율의 기회로 이용이 되도록 고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 대표는 물론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이면 난가 고시에 대한 의견교환이 핵심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좀 진부한 감이 있어 보다 큰 채란업계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들이 잘 조화가 되도록 채란분과위원회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 천위원장은 본회 부회장과 이사의 중책도 맡고 계시고, 서울경기양계축협 이사과 용인집하장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란업계의 현안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로 지적을 하신다면?

△ 천강균 : 채란업계의 현안 문제는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산기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란의 생산구조가 농가 출하능력에 맞추어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어리 생산 흐름에 따라 좌우가 될 정도로 비과학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포함한 생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별 농가단위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는 국제경쟁력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식품의 안전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채란농가의 대책 마련은 매우 느슨한 감을 가지고

있어 자칫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시에 소비위축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채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 난가고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분과위원장의 입장에서 난가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천강균 : 난가고시에 대해서는 전국 계우회연합회 회원들이 난가고시 조절위원회에 위임을 한 이상 채란분과위원장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고 수천명의 회원을 모두 만족하게 하기란 어렵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난가조절의 기초 자료가 되는 생산비를 연속적으로



△ 천강균 채란분과위원장

산출한 다음 물량 흐름을 보아가며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은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생산자들이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집하장을 확대·발전시켜 상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출하방식을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방법을 달리해도 난가고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할인(D.C) 폭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져 채란

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 생산자들이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수퍼마켓 등 직접 납품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 천강균 :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론만 가지고 뛰어들게 되면 유통의 속성으로 인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과당경

쟁으로 가격이 흐려지는 결과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유통과 생산을 분리하여 나가는 체제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천강균 : 토의 방식도 서서히 바꾸고, 논의된 사항은

지속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수입되는 상황에 생산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일체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부·분회를 순회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농가에서는 항상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